

彰善感義錄의 二重表記화와 讀者期待*

金 秉 權**

目 次

- | | |
|------------------------|----------------------|
| I. 서 論 | 1. 양반 대상의 유포본 생산 |
| II. 작품 구조와 사회집단의 정신구조 | 2. 양반 신분의 구체적 독자 |
| A. 사회집단의 이념적 가치 생산 | B. 작품에 대한 독자의 기대 |
| 1. 양반집단의 지배이념 확인 | 1. 한문표기와 지배수단 획득 |
| 2. 양반가문의 위신 회복 | 2. 국문표기와 상호존중 실현 |
| B. 집단 구성원의 현실 개량 지향 | IV. 독자의 삶의 방식과 이중표기화 |
| 1. 남성의 지배수단 획득 | A. 남성의 지향 실현과 한문표기 |
| 2. 여성의 남녀상호존중 실현 | B. 여성의 지향 실현과 국문표기 |
| III. 독자의 신분과 작품에 대한 기대 | V. 결 論 |
| A. 독자의 사회적 신분 | |

I. 서 論

창선감의록은 한문으로도 표기되고 국문으로도 표기된 이중표기화 소설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창선감의록의 구조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고찰하여, 이 작품이 이중의 문자 체계로 표기될 수 있었던 한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1990년도 문교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육성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고전문학.

우리나라의 고소설은 표기 문자에 의하여 국문으로 표기된 작품과 한문으로 표기된 작품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소설이 국문으로도 표기되고 한문으로도 표기된 작품도 상당수 있다.¹⁾ 국문으로 표기된 소설이 국문으로 문자 생활을 한 독자에게 읽혔던 작품이라면, 한문으로 표기된 소설은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한 독자에 읽혔던 작품이고, 이종의 문자 체계로 표기된 소설은 국문으로 문자 생활을 한 독자에게도 읽혔고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한 독자에게도 읽혔던 작품이다.

그래서 이종의 문자 체계로 표기된 소설은 어느 한 문자 체계로 표기된 소설에 비하여 독자의 계층이 다양했을 것이므로, 이러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실상을 거의 알지 못하는 독자층의 사회적 신분과 소설에 대한 기대를 조명할 수 있게 하며, 작가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이 독자에게 전달되고 독자에게 수용되는 역사적 변천을 밝힐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수용사의 측면에서 한국의 소설사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²⁾

이종의 문자 체계로 표기된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표기 문자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졌다.³⁾ 이와 같은 연구에서 첫째, 국문 표기와 한문 표기의

-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고소설목록에 의하면, 고소설 중에서 표기가 한문과 국문으로 이중화된 작품으로는 약 30여종이다.
- 2) 이러한 관심은 류탁일 선생님의 ‘한국문헌학연구’ 대학원 강의(1985년 가을학기)에서 많은 시사를 받았음을 밝혀둔다.
- 3) 黃汎江, 「조선왕조소설의 계통과 전개」, 『朝鮮王朝小說研究』, 韓國研究院, 1978.
丁奎福, 「九雲夢原典의 研究」, 一志社, 1977.
丁奎福, 「九雲夢의 原作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54, 국어국문학회, 1971.
丁奎福, 「九雲夢의 表記文字에 對하여」薛盛璟 氏의 漢文・國文表記說에 붙여, 開新語文研究 1, 忠北大 國語教育科, 1981.
薛盛璟, 「九雲夢의 構造的 研究—表記文字論」, 원우론집 2, 延世大 大學院, 1974.
李金喜, 「南征記의 文獻學的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
丁奎福, 「譯南征記」, 淵民李家源博士六秩頌壽紀念論叢, 汎學圖書, 1977.
金秉權, 「謝氏南征記의 國文表記化에 對하여—耽津安氏門中傳來本을 중심으로—」, 韓國古小說研究會 研究發表 要旨, 1991. 5.
車裕柱, 「原本表記의 國漢問題」, 『玉樓夢研究』, 螢雪出版社, 1981.
이중주, 「漢文本 洪吉童傳 檢討—경관・완판과의 대비—」, 국어국문학 제99호, 국어국문학회, 1988.

관계에서 어느 표기가 앞이나, 둘째, 한 작품이 왜 이중의 문자 체계로 표기되었느냐, 셋째, 표기 문자의 전환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느냐 하는 문제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창선감의록의 연구에서, 첫째의 문제는 한문 표기 선행설⁴⁾과 국문 표기 선행설⁵⁾로 대립되어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문헌의 기록이 나타나야 해결될 것이다. 둘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문 교양을 소유한 부류들의 요구에 호응해서 한문본이 성립되고 또 부녀들의 요구에 호응해서 국문본이 성립되어 공존하였다는 견해가 있는데,⁶⁾ 독자의 기대와 관련하여 규명될 것이다. 셋째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실정인데, 이는 한문 표기와 국문 표기 사이의 본문의 차이⁷⁾와 독자 기대의 관계에서 밝혀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첫째와 셋째의 문제는 다음의 기회에 연구하기로 하고, 우선 둘째의 문제에만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창선감의록이 이중의 문자 체계로 표기화될 수 있었던 요인은 이 작품의 구조가 국문으로 문자 생활을 한 계층의 독자의 기대와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김진영, 「한문 필사본 洪吉童傳考」, 한국고전전문학연구회 제123회 발표 요지, 1988. 11. 5.

정하영, 「조선후기 국문소설의 漢譯에 대하여」, 한국고전전문학연구회 제128회 발표요지, 1989. 8. 16.

丁奎福, 「洪吉童傳 漢文本의 텍스트 문제」, 한국한문학연구회 발표요지, 1990. 5. 26.

金鎮英, 「韋(을)島王傳(吉童傳) 연구」, 古典文學研究 第5輯, 韓國古典文學研究會, 1990.

4)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精研社, 1969), p. 350.

文璇奎, 「彰善感義錄攷」, 語文學 9(韓國語文學會, 1963), p. 1.

車溶柱, 「解題」, 「彰善感義錄」(螢雪出版社, 1978), pp. 216-219.

5) 姜鎰燮, 「화진전에 대하여」, 韓國語文學 第13輯(韓國語文學會, 1975), p. 121.

林煥澤, 「17世紀 閩房小說의 成立과 倡善感義錄」, 東方學志 57(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1988), pp. 35-36.

6) 林煥澤, 앞의 논문, pp. 129-130.

7) 필자는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일차적으로 40여종의 유포본을 수집하여 본문을 대조한 결과, 작품의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본문의 변화가 상당히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본문 대조를 마친 40여종 중에서 善本이라고 생각되는 류탁일 교수님 소장의 한문본(倡善感義錄, 1책)과 정명기 교수님 소장의 국문본(창선감의록, 3책)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한 계층의 독자의 기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자의 기대는 작가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정신 구조인 세계관을 형상화한 작품의 구조에 대한 반응이며,⁸⁾ 이 반응은 독자 자신의 현실적인 삶의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⁹⁾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국문으로 문자 생활을 한 계층의 기대와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한 계층의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었던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고, 작품의 구조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분석하며, 이중표기화의 요인을 규명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연구 방법이 원용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작품의 구조를 문학사회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독자의 기대를 유포본의 후기¹⁰⁾로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창선감의록이 이중의 문자로 표기될 수 있었던 요인은 독자의 현실적인 삶의 방식과 작품을 표기하고 있는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8) 골드만의 발생구조주의에 의하면, “어느 집단 구성원이 같은 상황에 의하여 동기화되고 같은 방향을 추구할 때, 그 구성원들은 그들의 역사적 상황 안의 한 집단으로서의 기능적 정신 구조를 스스로 다듬는다. 우리들은 각각 분리된 행위에 대한 정신 구조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들은 역사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또한 주요한 철학적, 예술적, 그리고 문학적 창조물로 표현된다.”고 한다.〈워싱턴 골드만 저, 박영신·오세철·임철규 옮김, 「문학사회학의 방법」(현상과인식, 1984), p.64.〉 이 이론에 의하면, 작가는 구성원으로 소속하고 있는 집단의 정신 구조를 다듬으며, 그의 작품은 역으로 집단으로 하여금 그 구조에 대한 첩예화된 인식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작가가 구성원으로 속하고 있는 집단의 사회의식과 행동에서 발생한 작품의 구조는 독자의 기대와 연결될 수 있다.

9) Suan R. Suleiman, Introduction: Varieties of Audience-Oriented Criticism, Suan R. Suleiman and Inge Crosman(edit.), THE READER IN THE TEXT(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p.35-36.

10) 김동욱님과 정명기님이 이 후기를 조사하고 해석한 연구가 있다.

金東旭, 「李朝小說의 作者와 讀者에 대하여」,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호서문화사, 1971.

鄭明基, 「古小說의 後記의 性格攷(一)」, 원우론집 7, 延世大 大學院, 1971.

II. 작품 구조와 사회집단의 정신구조

작품의 구조는 사회 집단의 정신 구조에서 발생하며, 작가는 구성원으로 소속해 있는 사회 집단의 정신 구조를 소설을 통하여 표현하여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그 정신 구조를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창선감의록을 발생하게 한 사회 집단은 이 작품의 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에 대한 독자의 기대는 작품의 구조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므로 창선감의록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창선감의록의 작품의 구조를 사회 집단 사이의 대립, 가족 구성원 사이의 대립, 정치적 집단 사이의 대립, 남녀 사이의 대립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여, 사회 집단의 정신적 구조를 이념적 가치와 현실적 개량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A. 사회집단의 이념적 가치 생산

1. 양반집단의 지배이념 확인

창선감의록은 상하 계급 분별이 엄했던 시대의 상류 계급 사회 및 생활면이 대변되어 있다고 한다.¹¹⁾ 이러한 구조를 발생하게 한 사회 집단의 정신 구조를 고찰하는 일은 작품에서 전개되는 신분 사이의 대립 구조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창선감의록에서 사건의 중심 공간인 화씨 가문은 양반 신분과 상민 신분으로 구성된다. 상민 신분으로는 화춘의 첩인 조녀, 화춘과 사권 범한 및 장평, 이 가문의 많은 노비들이다. 양반 신분으로는 심부인, 화춘과 임소저, 화진과 윤부인 및 남부인이다. 이러한 가문의 구성에서 두 신분 사이의 관계는 조화롭기도 하지만 대립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의 문제 의식은 두 계층의 대립에서 찾아진다.

상민 신분에 속하는 인물들의 동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조녀의 동기는

11) 文脈奎, 앞의 논문, p. 24.

화춘의 첩이 된 후 임소저를 모함으로 쫓아내고 스스로 처가 되려는 것이다. 범한의 동기는 화춘과 가까이 함으로써 화춘의 처가 된 조녀와 사통하고, 심부인과 화진을 모함하여 죽이고, 화씨 가문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장평의 동기는 화춘과 사귀므로써 화씨 가문의 재물을 마음대로 쓰고 빼앗으려는 것이다.

상민 신분의 인물이 동기를 성취하는 과정은 화씨 가족의 윤리와 가문의 경제를 파괴하며, 사회의 신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엄격한 신분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지배 체제의 위기를 초래한다. 상민 신분의 동기는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현실적 자각이며, 그 동기의 실현은 현실적 자각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양반 신분에 속하는 인물들의 동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심부인의 동기는 첫째 부인으로서 화진을 제거하고 자신의 소생인 화춘이 가부장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며, 화춘의 동기는 장자로서 가부장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차자인 화진을 제거하는 것이고, 화진의 동기는 심부인에게 효성하고 화춘을 공경하는 것이며, 임소저, 윤부인 및 남부인의 동기는 가정의 화목을 이루려는 것이다.

심부인과 화춘의 동기는 가족의 위계를 명분으로 하지만, 그 실현은 위에서 언급한 상민들의 동기의 실현으로 일어난 윤리의 문란과 질서의 위기를 가속화한다. 그리고 화진과 임소저, 윤부인과 남부인의 동기는 가족 구성원의 윤리의 실천이며, 그 실현은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는 가정의 윤리와 질서를 회복한다.

상민 신분의 인물의 동기와 양반 신분의 인물의 동기는 서로 대립하며, 양반 신분의 인물의 동기가 대립하기도 한다. 양반 신분 사이의 대립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인물이 개과하고, 대립의 주체가 서로 화해함으로써 해소된다. 그러나 상민 신분과 양반 신분 사이의 대립은 상민 신분의 인물을 처벌함으로써 해소된다. 이러한 대립의 결과는 상민 신분의 현실적인 동기와 행위를 부정하고, 양반 신분의 이념적 가치와 그 실천을 강조하여, 양반 집단을 결속하고 보호하려는 시각이다.¹²⁾

12) 金秉權, 「17世紀後半 創作小説의 作家社會學的 研究」(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pp. 111-113.

따라서 창선감의록은 상민 신분과 양반 신분의 대립 구조로써 상민 신분의 현실 자각과 자기 존재 가치 인식에 대하여 양반 신분 중심의 신분적 질서의 근간인 이념적 가치를 생산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상민 신분에 대하여 신분 질서를 확립하고 지배 이념을 확인하려는 양반 집단의 정신 구조와 상동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양반가문의 위신 회복

창선감의록이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한 도덕소설의 주제성과 가정소설의 주제성을 나타낸다’고 한다.¹³⁾ 창선감의록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서술하여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를 강조한 작품이다. 여기서는 창선감의록의 구조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대립을 분석함으로써, 이 작품을 발생하게 한 사회 집단의 정신 구조를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작품의 목적을 명료히 하는 허구외적 장치¹⁴⁾의 하나인 題詞로써 살펴보기로 한다. 제사는 작품의 지위를 고양하거나 특별한 작품의 주제를 내세우는 기능을 갖는데,¹⁵⁾ 창선감의록의 제사는 다음과 같다.

大凡人生勿論男女貴賤 而必以忠孝爲本 至於友愛慈敬之心 樂善行德之意 一皆從斯而出也……然爲善者必昌 爲惡者必亡 亦足以動人 而懲勸者矣¹⁶⁾

작품의 허구외적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작품의 권위로 작용하며, 작품이 창조하는 모든 목소리들은 그것에 종속된다.¹⁷⁾ 위의 인용에서 보는 것처럼 창선감의록은 일상생활에서 충·효·우애의 유학적 이념의 실천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충은 국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념이며, 효와 우애는 가정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념이다.

13) 金起東, 앞의 책, pp. 354-355.

14) 작품의 허구 외적 장치는 작품명, 분회, 제사, 헌사 등이며, 이 허구외적 장치는 작가의 정체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고, 청중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립하고, 스토리의 테마나 플롯의 어떤 요소를 해명하거나 방어하고, 텍스트의 목적을 명료히 하고, 스토리와 역사와의 관계를 확립한다.(Susan Sniader Lanser, *The Narrative Act Point of View in Prose Fi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 125.)

15) 위와 같은 곳.

16) 한문 표기 필사본(류탁일 소장, 1책), 제1장 전면.

17) Susan Sniader Lanser, 앞의 책, p. 128.

충을 표상하기 위한 구조는 '남성의 지배 수단 획득'에서 분석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윤리인 효와 우애를 표상하기 위한 구조를 분석하여, 이 구조가 추구한 이념적 가치를 고찰하기로 한다.

여양후의 벼슬을 한 화옥은 세 부인과 함께 살았는데, 첫째 부인이 화춘을 낳고, 둘째 부인이 빙선을 낳고, 세째 부인이 화진을 낳았다. 화옥과 둘째 부인 및 세째 부인이 죽은 이후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 그 양상은 첫째로는 첫째 부인과 화진의 대립, 둘째로는 화춘과 화진의 대립, 세째로는 화춘의 첩과 처의 대립, 네째로는 화춘의 첩과 화진의 처 사이의 대립으로 전개된다.

첫째의 양상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갈등과 대립이다. 첫째 부인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자애를 결여하여 있고, 화진은 자식으로서 효성을 실천한다. 둘째의 양상에서는 화춘은 형으로서 아우에 대한 우애를 결여해 있고, 화진은 동생으로서 형을 공경한다. 세째의 양상에서는 화춘의 첩은 화춘의 처에게 시기와 질투를 자행하여 처가 되려 하며, 처는 아내로서의 본성과 직분을 실천한다. 네째의 양상에서는 화춘의 첩이 처로서 종부가 되어 체통을 획득하려 하며, 화진의 처는 처로서의 직분을 실천하고 품위를 지키려 한다.

이와 같은 각 대립에서 전자가 보이는 자애의 결여, 우애의 결여, 질투와 시기는 본능적인 욕망을 달성하려는 의식과 행위이다. 이러한 각 인물들의 의식과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정의 질서 및 화락을 파괴한다. 가정의 질서 및 화락의 파괴는 양반 가문으로서의 위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사회에 대한 양반의 가문 위신과 체면을 극도로 손상시킨다.

그리고 후자가 보이는 효성의 실천, 공경의 실천, 직분의 유지는 사회적인 욕망을 달성하려는 의식과 행위이다. 이러한 각 인물들의 의식과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파괴된 가정의 질서 및 화락을 회복한다. 가정의 질서 및 화락의 회복은 손상된 양반 가문의 위계를 회복하여, 사회에 대한 양반 가문의 위신과 체면을 되찾게 한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대립의 결과는 본능적 욕망에 따른 행위가 부정되고 사회적 욕망에 따른 이념의 실천이 긍정된다. 여기서 긍정되는 사회적 욕망에

따른 이념은 첫째의 대립에서 강조되는 효, 둘째의 대립에서 강조되는 형제의 우애, 세째의 대립에서 강조되는 처첩 사이의 우애, 네째의 대립에서 강조되는 동서 사이의 우애 등이다. 이러한 효와 우애는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가문의 위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대한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이념이었다.

따라서 창선감의록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적 가치를 생산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대가족제도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대립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계의 문란에 대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에 대한 양반 가문으로서의 위신을 유지하려는 양반 집단의 정신 구조에서 발생하였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창선감의록을 발생하게 한 사회 집단의 정신 구조를 이념적 가치의 측면에서 고찰한 결과, 창선감의록은 사회적 신분 질서와 가정의 윤리가 위기의 국면임을 인식한 양반 집단이 자기 중심의 지배 이념을 확인하고 가문의 위신을 회복하려는 이념적 가치를 생산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가문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배 이념을 확인하고 가문의 위신을 지속시키려는 양반 집단의 정신 구조와 상동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B. 집단 구성원의 현실 개량 지향

창선감의록의 구조는 양반 집단이 자기 신분 중심의 지배 이념을 확인하고, 가문의 위신을 회복하려는 이념적 가치를 생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는 이 작품을 발생하게 한 양반 집단 구성원 사이의 대립을 분석하여, 그들이 현실을 개량하려는 지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남성의 지배수단 획득

앞에서 인용한 창선감의록의 제사는 국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충과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효·우애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는 충을 표상하기 위한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여 이 작품의 구조를 발생하게 한 사회 집단 구성원이 현실을 개량하려는 그들의 지향을 고찰하기로 한다.

창선감의록에서 황제를 정점으로 한 지배 집단¹⁸⁾의 주요 구성원은 승상 엄송, 상서 화옥, 시랑 윤혁, 어사 남표, 제독 진형수 등인데, 엄송이 국권을 전횡함으로써 지배 집단의 구성원이 분열하고 지배 집단 내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 이 갈등과 대립은 엄송을 중심으로 한 집단과 화옥, 윤혁, 남표, 진형수 사이에 전개된다.

먼저 엄송의 집단과 화옥의 대립, 엄송 집단과 윤혁의 대립에서는 화옥과 윤혁이 엄송 집단의 국권 전횡이 의롭지 못함을 걱정하고 청병사직하여 낙향함으로써 그들의 대립은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다음 엄송 집단과 남표의 대립에서는 남표가 엄송의 죄상을 열거하여 황제에게 상소하나, 황제는 엄송 집단의 뜻을 따라 남표를 유배보낸다. 마지막으로 엄송 집단과 진형수 사이의 대립에서는 진형수가 엄송의 양자인 조문화의 청혼을 거절하고, 조문화는 진형수가 공금을 절취하였다고 모함하고, 황제는 진형수를 극형으로 다스리려고 한다. 이와 같이 지배 집단 내부의 갈등과 대립에서 전자가 보이는 전횡과 모함은 후자가 택하는 소극적인 낙향과 적극적인 대결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나아가 변방의 반란과 외적 침입을 초래한다. 이처럼 창선감의록에서의 정치적 상황은 국가의 지배 질서가 문란하며, 국가가 존망의 위기로까지 이른다.

지배 질서 및 국가 존망의 위기는 엄송의 집단과 대결 의식을 보였던 인물들의 자식들이 충을 실현함으로써 극복되는데, 그 중에서도 화옥의 아들인 화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진의 일대기를 요약하면, ‘여양후의 후예—아버지와 함께 낙향—과거 급제와 한림학사 제수—엄송의 집단과 결탁한 가족 구성원의 모함에 의한 관직의 삭탈과 귀양—참전과 전공—진국공과 천석의 봉토’로 정리된다. 이러한 일대기에서 화진은 첫째, 충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배 집단 내부의 대립으로 인한 지배 질서의 위기와 외적의 침략으로 인한 국가의 존망의 위기를 회복하고, 둘째, 지배 수단과 생산 수단을 획득함으로써 지배 집단으로 부상한다. 첫째의 의미는 충이라는 이념적 가

18) 지배 집단은 생산 수단, 지배 수단, 지향 수단을 장악하려고 한다.〈崔載賢, 「19세기 社會運動의 戰略集團」, 조선후기의 체제위기와 사회운동(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 115.〉

치의 생산이고, 둘째의 의미는 이념적 가치의 실천을 통하여 현실을 개량하려는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창선감의록은 양반 집단 구성원이 충을 실천함으로써 지배 수단을 획득하여 현실을 개량하려는 지향을 생산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배 질서와 국가 존망의 위기 국면을 인식하고, 이 위기 국면에서 지배 수단을 획득하고 현실을 개량하려는 사회 집단의 정신 구조에서 발생하였다고 하겠다.

2. 여성의 남녀상호존중 실현

앞에서는 충이라는 이념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지배 수단 획득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남성 중심의 현실 개량 지향이다. 여기서는 가족의 구성원인 남녀의 관계에 대한 여성의 의식을 분석하여, 여성 중심의 현실 개량을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허구내적 인물인 여성의 발언으로써 여성의 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식을 표명한 허구내적 인물인 여성의 발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소저 울며 7로티 쇼질이 비록 옛날 제영의 정성이 읊시나 이제 부친나 수지의 계시거날 웃지 죽식이 되야서 죽마 여괴 안져 보오리¹⁹⁾
- ② 소저 7 티연 고히 7로티 옛적 효녀난 혹 몸이 종이 되여셔도 그 아비 죽는 거술 슈죄함도 잊습고 또한 그 몸을 파라스 그 부모랄 장스 지닌 스름도 잊스오니 소녀의 신테 발부가 드 부모의 혈육이오니 이제 부친 계압셔 죽는 티 계시거날 그 죽식된지 웃지 몸의 욕되고 욕되지 안는 걸 헤아리요²⁰⁾

위의 두 예는 창선감의록의 허구내적 인물인 진채경의 발언인데, 이 발언을 한 상황은 아버지인 진형수가 엄중 집단의 모함으로 사형의 위기에 있는 국면이다. 진형수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이 경사로 가려고 할 때에 진채경을 두고 가려고 하였는데, ①은 이에 대한 진채경이 자신의 의식을 나타낸 내용이다. 이 발언에는 위기에 처해 있는 아버지에게 효를 실천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을 나타낸다. 그리고 진형수를

19) 국문 표기 필사본(정명기 소장, 3책), 제1책 제51장 후면.

20) 위의 책, 제53장 전면.

모함한 집단의 구성원인 조문화가 진형수를 죽음의 지경에서 구해 준다는 전제로 진채경과의 결혼을 진형수의 가족에게 제의했다. 이러한 제의를 받은 가족들이 모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는데, ②는 이에 대한 진채경이 자신의 의식을 나타낸 발언이다. 그 내용은 아버지의 위기를 보고 자식으로서 신상의 욕되고 욕되지 않음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며, 그 의미는 직분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이라고 하겠다. 한편 진채경이 조문화의 청혼을 거짓으로 허락함으로써 진형수의 죄가 사형에서 유배로 낮추어지며, 진채경은 아버지가 유배지로 떠난 후 남복을 하고 아버지의 유배지로 도망하여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진채경의 행위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진채경의 의식과 행동에 대하여 ‘소극적·타성적으로 굴종만으로 부덕이라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꼭 여자의 도리는 아님을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다.²¹⁾ 진채경의 의식과 행동은 양반 가계의 위신을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효를 절대 명제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자식이 효를 실천해야 하는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채경의 의식과 행동은 효의 실천에 있어서 남녀의 직분과 능력을 구분하고 여자의 ‘三從之道’를 요구하는 남존여비의 사회 제도에서 남녀의 동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사회 현실에 참여하려는 여성의 각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도 있다.

다음 처와 첩 사이의 대립 구조로써 여성의 의식을 보기로 한다. 창선감 의록에서 처와 첩의 갈등과 대립이 전개된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처와 첩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서, 남편은 첩의 시기와 모함을 따르는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며, 처는 첩의 시기와 모함으로 겪는 시련을 극복하고 난 뒤 영화로움을 획득한다. 이러한 내용은, 양반 가계의 위신을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처와 첩이 서로 질투하지 말고 우애해야 한다는 본보기가 된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첩을 두는 일부다처제의 가족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식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창선감의록은, 남존여비의 사회 제도와 가부장 중심의 가족 제

21) 林熒澤, 앞의 논문, p. 147.

도에서, 한편으로는 효와 우애의 이념적 가치를 실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존중되는 현실을 지향한 여성의 정신 구조를 나타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창선감의록의 구조를 발생하게 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의 현실적 지향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선감의록은 충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배 수단을 획득하려는 남성의 현실 개량과, 효와 우애라는 이념적 가치를 실천하고 여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여성의 현실 개량을 생산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구조를 발생하게 한 사회 집단의 정신 구조는 다음에서 고찰하게 될 독자 기대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III. 독자의 신분과 작품에 대한 기대

고소설의 독자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었지만,²²⁾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듯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²³⁾ 고소설의 한 작품에 대한 독자의 연구는

22) 고소설연구회가 1990년 7월 12일에 주최한 연구발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다.

23) 朴斗鉉, 「古代小說과 平民—作品과 讀者에 대하여」, 국어국문학연구 6, 靑丘大, 1965.

金東旭, 앞의 논문.

鄭明基, 앞의 논문.

閔丙德, 「洪吉童傳의 讀者意識」,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호서 문화사, 1971.

崔喆, 李朝小說 讀者에 관한 연구, 연세어문학 제6집, 연세대, 1975.

李源周, 「古典小說 讀者의 性向—慶北 北部 地域을 中心으로—」, 韓國學論集 第3輯, 啓明大 韓國學研究院, 1975.

吳春澤, 「朝鮮前期의 小說意識」, 어문논집 23, 高麗大, 國語國文學會, 1982.

張孝鉉, 「조선 후기의 小說論—필자본 소설의 序·跋을 중심으로—」, 語文論集 23, 高麗大 國語國文學研究會, 1982.

朴逸勇, 「조선 후기 소설론의 전개」, 국어국문학 94, 국어국문학회, 1985.

金一烈, 「漢文小說과 讀者」, 어문론총 제24호, 경북어문연구회, 1990.

大谷森繁, 「朝鮮後期小說讀者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5.

활발하지 않았다. 창선감의록은 90여종에 달하는 이본으로 유포되었으니, 이러한 실상은 상당히 많은 독자가 이 작품을 읽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 작품이 한문으로도 표기되고 국문으로도 표기되어 유포되었으니, 독자의 계층이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자와 국문을 해독할 수 있는자,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 않고 광범위했음을 입증한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창선감의록을 읽었던 독자의 사회적 신분 범주와 창선감의록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고찰하고자 한다.

A. 독자의 사회적 신분

창선감의록의 구조를 발생하게 한 사회 집단이 양반 신분임을 앞에서 이미 고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로써 창선감의록의 독자 집단은 양반 신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창선감의록의 독자와 그들의 신분은 구체적인 문헌 자료에 의하여 고찰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록은 풍부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첫째로는 유포본의 생산 방법을 출판사회학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유포의 대상을 고찰하고, 둘째로는 구체적인 독자를 문헌으로 조사함으로써 유포본의 생산 방법으로 고찰한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로 창선감의록을 읽었던 독자들의 신분적 범주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양반 대상의 유포본 생산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의 생산 주체와 객체를 검토함으로써 독자의 대체적인 윤곽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설의 유포본의 생산은 필사, 판각 인쇄, 활자 인쇄, 석판 인쇄 등으로 이루어진다. 필사에 의한 유통은 독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요구될 때 일어나며, 인쇄에 의한 유통은 동일한 서적을 요구하는 독자들이 많아야만 이루어진다.²⁴⁾ 다시 말하면, 필사는 필사자 자신이 독자가 되어 자신을 대상으로 생산하는 방법이고, 인쇄는 인쇄자가 동일한 성향을 지닌 많은 독자를 대상으로 생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필사본의 생산 주체인 생산자와 인쇄본의 생산 객체인 소비자는 소설의 독

24) 柳鐸一, 「古小説의 流通構造」, 韓國古小説研究會 編, 『韓國古小説論』(亞細亞文化社, 1991), pp. 351-353.

자가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생산한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범위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창선감의록의 독자의 신분적 범주를 고찰하고자 한다.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을 조사한 결과를 표기 문자와 생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⁵⁾

판 종	필사본	석판본	방각본	구활자본	계
국문표기	54종	0종	0종	2종	56종
한문표기	30종	1종	0종	1종	32종
계	84종	1종	0종	3종	88종

이상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대부분 필사로 생산된 점이고, 둘째, 석판 인쇄로 생산된 점이고, 셋째, 방각으로는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넷째, 구활자 인쇄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유포본 생산의 대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대부분의 유포본이 필사로 생산되었다는 점이다. 고소설들은 대부분 필사본으로 생산되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고소설의 대부분이 필사본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동욱님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소설이 사대부문학으로 생성돼서 삼백년간, 그들은 일면 이를 배경하면서 일면 이를 창작하고 서사하여 전승시켜왔다. 일류진신이 이에 참여한 바도 있지만 대체로 정권에서 유리된 향반, 군관, 서리 중에서 처음에는 가정간에서 다시 이것이 서사의 과정을 밟아 일반화되어 광포되었다.²⁶⁾

고소설의 유포본 생산의 방법은 주로 필사였고, 주역은 양반 계층이었으나 재야 양반, 중인 계층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인데, 창선감의록의 필사본 생산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선감의록의 필사본은 양반

25) 유포본을 조사하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고소설목록』을 주자료로 하였고,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로서는 류탁일 교수, 정명기 교수, 박순호 교수 등 개인 소장본만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실제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은 더 늘어날 것이다.

26) 金東旭, 앞의 논문, p. 52.

제충 및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중인 계층을 포함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생산되고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문으로 표기된 석판본이 간행되어 유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석판본은 밀양에서 생산되어 판매되었다.²⁷⁾ 이우성 선생덕에서 많은 儒家書를 간행하였는데, 소설로서는 유일하게 창선감의록이 간행되었으며, 이우성 선생도 어려서 이 작품을 애독했다고 한다.²⁸⁾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석판 인쇄에 의하여 유통된 창선감의록은 한문을 문자 생활의 수단으로 삼은 양반 또는 지식인 신분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되었거나, 그들의 요구에 의하여 생산되었던 것이다.

세째, 방각 인쇄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각 인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방각본 간행자가 동일한 소설을 요구하는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생산 방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소설 작품이 방각본으로 인쇄되기 위해서는 소설 독자의 형성과 상인의 영리 의식이 전제되었다.

먼저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이 적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작품의 독자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창선감의록의 독자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각본 간행자가 이 작품을 판각으로 인쇄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다음 방각소설 간행자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와 방각본 독자의 신분과 소설에 대한 그들의 성향을 고려했을 것이다. 소설을 간행하여 영리를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산비와 직접 관계되는 작품의 길이가 일차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창선감의록은 상당히 긴 작품이기 때문에 판각으로 간행하는 생산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방각소설 간행자는 창선감의록과 비슷한 분량인 구운몽, 사씨남정기, 조웅전 등을 그대로 또는 내용을 축약하여 생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창선감의록이 장편이었기 때문에 방각본으로 간행되지 못했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겠다.

27) 이 석판본의 판권지를 보면, 大正4(1915)년에 坂本靜谷이 밀양군 서문내 二葉山房에서 간행되었고, 정가가 백지이원이라고 하였다. 이 판권지로서 석판본은 독자에게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28) 林熒澤, 앞의 논문, p. 134.

한편 방각소설 간행자가 소설을 간행하는 일에는 방각소설 독자의 사회적 신분 및 독서 성향이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방각본은 조선조 후기에 상민들을 대상으로 생산한 서적이며, 방각소설의 경우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²⁹⁾ 즉 방각소설의 간행자는 자신들의 영리를 위하여 상민 독자의 성향에 맞는 소설을 방각으로 인쇄하여 생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창선감의록은 작품 구조가 양반 집단의 이념적 가치를 생산하고, 현실 개량을 실현하고 있음을 앞에서 고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작품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각성한 상민 계층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창선감의록이 상민 독자의 독서 성향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방각소설 간행자들은 창선감의록을 방각본으로 생산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⁰⁾

네째, 구활자본의 간행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소설의 구활자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민들에 의하여 개화기 이후의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생산되었고, 구활자본으로 생산된 고소설은 약 200여종에 달하고 있다.³¹⁾ 필사본의 수로 보면 독자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고, 석판 인쇄로까지 생산되었던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이 구활자를 인쇄 수단으로 한 생산이 크게 활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구활자본 시대의 소설 독자의 소설에 대한 기대와 관계될 것이다. 양반 집단의 정신 구조에서 발생한 창선감의록의 구조가 개화기 이후 다양한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창선감의록에 대한 수요가 크게 형성되지 않았던 사실로 이해할 수 있다.

창선감의록이 한문표기와 국문표기에 의하여 필사본으로 광범위하게 유포었고, 석판본으로는 생산되었으나 방각본으로는 생산되지 않았으며 구활자본으로의 생산 회수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창선감의록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양반 신분 또는 이 신분을 지향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29)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亞細亞文化社, 1989), pp. 139-152.

30) 구운몽과 사씨남정기가 방각으로 간행되었으나, 창선감의록이 방각본으로 간행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작품의 구조와 사회적 집단의 정신 구조, 독자의 기대와의 상관 관계에서 해명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과제로 삼는다.

31) 李能雨, 「이야기책(古代小說) 舊活字本 調査 目錄」, 『古小說研究』(宣明文化社, 1973), pp. 269-306.

의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포본이 생산되었던 작품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창선감의록의 독자의 사회적 신분 범주는 양반 집단이었다고 규명할 수 있겠다.

2. 양반 신분의 구체적 독자

창선감의록을 평한 인물, 창선감의록을 필사한 인물과 소유한 인물, 창선감의록을 읽었음이 밝혀진 인물은 창선감의록의 구체적인 독자였다고 할 수 있다. 창선감의록을 평한 내용은 李遇駿의 夢遊野談과 晚臥翁의 一樂亭記序, 李炳勛의 懸吐彰善感義錄序, 기록자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彰善感義錄跋 및 謝氏南征記後序 등에서 찾아진다. 그리고 창선감의록을 필사한 인물은 유포본의 후기에서 찾아지며, 창선감의록의 독자였음을 밝히고 있는 인물로는 松南雜識에서 제시되는 趙聖期的 어머니이다. 이 중에서 필사본의 후기에 기록된 필사자와 소유자는 그 신원이 거의 밝혀지지 않으며,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독자는 창선감의록의 내용을 언급하고 평한 이우준과 만와옹, 이병옥이고, 창선감의록의 독자였음이 밝혀진 인물로는 조성기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창선감의록의 구체적인 독자의 신분을 고찰하기로 한다.

일락정기서를 쓴 만와옹은 일락정기를 창작한 작가이다. 만와옹이 누구 인지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론되었다. 만와옹에 대하여 ‘한문으로 소설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사대부의 일원이라 할 수 있고, 웅이라 자칭한 것을 보면, 인생의 고비를 넘은 오십이상의 사대부로 보인다.’³²⁾라고 제시되었다. 이 이후에 만와라는 호를 사용한 인물로는 李頤淳(1754-1832)³³⁾과 金裕壽(1695-1761)³⁴⁾로 제시되었다. 이이순은 은진현감을 끝으로 정계에서 물러난 이후 花王傳을 지었고 後溪集을 남겼으며, 그리고 김유수는 한문으로 趙義士傳을 지었고 晚臥文集을 남겼다고 한다.³⁵⁾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만와가

32) 金東旭, 앞의 논문, p. 44.

33) 張孝鉉, 앞의 논문, p. 579.

34) 신동익, 「『一樂亭記』作者小考」, 丁奎福 編, 『韓國古典文學의 原典批評』(새문社, 1990), pp. 292-296.

35) 신동익, 앞의 논문, pp. 285-298.

이이순이든, 김유수이든, 또 다른 인물이든, 그는 지배 집단에 속하지 않는 양반으로서의 지식인이었다.

몽유야담을 쓴 이우준은 1801년에 태어나서 1867년에 세상을 하직한 인물인데, 이우준의 신분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다.³⁶⁾ 그는 자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鼻祖曰孝寧大君……. 曾祖……而竟不成名 因以零勢不振. 夢遊子……遊藝京師 出入場屋殆數十年 門衰祚薄 正晚老成四十餘 方始登上庠 先人時已篤老 以是千秋見背 因無意進取 遂廢舉業.³⁷⁾

이우준의 비조는 호령대군이며, 증조는 끝내 공명을 이루지 못하여 가세가 영락하였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과거에 응시하였고, 사십 여세에 비로소 上庠에 올랐으나 아버지가 너무 늙었으므로 진취에 뜻이 없어 과거를 포기하였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그는 왕실의 후예이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재야 지식인이었다.

이병옥은 한남서림에서 1915년에 창선감의록을 간행할 때 서문을 썼는데,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余之少時에 曾見此書 故 思所以刊布而碌碌風塵에 有志而未遂焉이러니…….³⁸⁾

위의 기록으로 이병옥이 창선감의록을 읽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을 현재까지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백두용은 蓬波居士와 같은 지식인 후견인을 두고 한남서림을 경영하였다.³⁹⁾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병옥도 백두용의 후견인의 한 인물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앞의 서문에서 “非善非義 則無以爲人”, “花家之孝子悌弟 所以格天感神之始末也”⁴⁰⁾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담론은 양반의 이념적 가치를 지향한

36) 成賢慶, 「19세기 조선인의 소설관」, 冠嶽語文研究 第3輯(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pp. 243-245.

37) 李遇駿, 「絃傳」, 『夢遊野談』(필사본, 영남대 소장)

38) 李炳勛, 「懸吐彰善感義錄序」, 『懸吐彰善感義錄』(한남서림, 1917), p. 1.

39) 柳鐸一, 앞의 책, pp. 175-177.

40) 李炳勛, 앞의 글, p. 1.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에 이병옥은 양반의 후예이거나 양반을 지향한 지식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창선감의록을 읽은 여성으로서 그 신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인물은 조성기의 어머니이다. 조성기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我先祖拙修公行狀曰 太夫人於古今史籍傳奇 無不博聞慣識 晚又好臥聽小說
以爲止睡遣悶之資 公自依演古說 構出數冊以進 世傳彰善感義錄 張丞相傳等
是也⁴¹⁾

위의 기록에 의하면, 조성기의 어머니는 고급사적과 전기에 박식하고 소설을 좋아한 여인이었으며, 창선감의록의 독자였다. 그리고 조성기의 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조시형이었고,⁴²⁾ 조성기는 주리론과 주기론의 절충론을 정립한 성리학자이며,⁴³⁾ “적국에 사신으로 갈 수 있는(可使敵國)” 인물이었고,⁴⁴⁾ 國朝人物考에서는 “儒學”으로 분류되었으며, 창선감의록의 작가이라고 고증되고 있다.⁴⁵⁾ 이처럼 조성기의 어머니는 군수의 부인이며, 학자의 어머니로서 양반가의 여성이었다.

이상의 몇 기록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창선감의록의 구체적인 독자는 양반 신분에 귀속되었으며, 남성 독자는 대체로 생산 수단과 지배 수단을 획득하지 못한 재야 지식인이었고, 여성 독자는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양반가의 부녀자였다.

이상에서 창선감의록의 독자 계층의 사회적 신분 범주를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포본은 양반 신분의 독자가 생산하였거나 양반 신분을 대상으로 생산되었다. 둘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남성 독자는

41) 趙在三, 「彰善感義錄」, 『松南雜識』.

42) 張舜範, 「解題」, 『拙修齋集』(驪江出版社 影印, 1984), p. 1.

43) 劉明鍾, 「朝鮮後期の 性理學」(以文出版社, 1985), pp. 381-386.

44) 朴趾源, 燕巖集 권14, 玉匣夜話(啓明文化社 影印, 1986), p. 188.

45) 金秉權, 「彰善感義錄研究」(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pp. 7-10.
嚴基株, 「倡善感義錄研究」(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p. 10-19.
丁奎福, 「彰善感義錄의 儒家思想과 小說史의 意味」, 『茶谷李樹鳳先生回甲紀念論叢
古小說研究論叢』(茶谷李樹鳳先生回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88), p. 352.
林榮澤, 앞의 논문, pp. 130-131.

지배 집단에 속하지 못한 양반 또는 지식인이었고, 여성 독자는 학식을 겸비하고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양반가의 부녀자였다. 그러므로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지식인으로서 지배 집단에 속하지 못한 양반 신분의 남성과 양반가의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상민으로서 신분 상승을 획득하고 양반의 이념적 가치를 지향하는 계층도 포함될 수 있다.

B. 작품에 대한 독자의 기대

창선감의록은 양반 신분의 이념 가치와 현실 개량의 정신 구조로 발생하였고, 창선감의록의 독자의 사회적 신분 범주는 주로 양반에 귀속되거나 양반을 지향하는 계층이었다. 한문과 국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한문 표기 유포본의 독자와 국문 표기 유포본의 독자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창선감의록에 대한 독자의 구체적인 기대는 이 작품을 평한 기록과 필사본의 후기⁴⁶⁾를 조사하고 검토함으로써 고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선감의록에 대한 구체적인 독자의 기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한문표기와 지배수단 획득

창선감의록에서, 지배 집단 내부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는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 이념인 충을 생산하여 확인하고, 지배 수단과 생산 수단을 획득하려는 양반 집단의 정신 구조에서 발생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작품의 구조에 대하여 독자의 기대를 고찰하기 위하여 한문으로 표기된 작품평과 후기를 소설에 대한 태도, 창선감의록의 기능, 창선감의록의 중요 사건 인식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창선감의록의 독자들은 소설에 대한 태도를 다음과 같은 어휘로 표현하고 있다.

① 彰善感義錄……節節有奇聞異說……此雖閭巷稗說……⁴⁷⁾

46) 필사본의 후기를 기록한 자를 경우에 따라서는 작가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사자는 필사하기 이전에 읽었거나, 아니면 필사하면서 읽게 마련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필사자를 독자의 입장이라고 보았고, 그 후기를 독자의 발언이라고 간주하였음을 밝혀 둔다.

47) 李遇駿, 「小說」, 앞의 책.

② 世之謂小說者 語皆鄙俚 事亦荒誕 盡歸於奇談諧謔⁴⁸⁾

위의 인용은 소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한 내용이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조 유학자가 소설을 배격하였던 입장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⁴⁹⁾ 즉 작품평 또는 후기를 한문으로 표기한 독자들은 소설을 배격하는 유학자들의 소설관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소설을 배격한 그들이 창선감의록을 읽었던 이유는 창선감의록의 교훈적 기능과 흥미적 기능에서 찾아진다. 먼저 창선감의록의 교훈적 기능부터 분석하기로 한다. 앞서 고찰하였듯이 작품의 구조가 충·효·우애라는 이념적 가치를 생산하였는데, 독자는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① 鑑戒而勸懲焉 所以補風化者 不可謂小矣⁵⁰⁾② 花家之孝子悌弟 所以格天感神之始末也⁵¹⁾③ 有感發底意⁵²⁾

이러한 발언은 창선감의록이 유학적 윤리를 이념적 가치로 획득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교훈적 기능을 가진 작품으로 인식한 것이다.

다음 창선감의록의 흥미적 기능을 분석하기로 한다.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① 走草草一篇 可玩 故間人借來 以拙毫謄出 以補閱覽之資⁵³⁾② 余於泔寂之中 爲其逍遙 借閱創感錄一書⁵⁴⁾

이러한 발언들은, 그들이 逍遙을 위한 자료로서 소설을 필요로 하여 창선감의록을 베껴 쓰거나 읽었음을 말해 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그들이 소견의 필요함을 인식한 생활이다. 소견은 그들의 시간적·정신적 한가함

48) 晚窩翁, 「一樂亭記序」, 『一樂亭記』, 『필사본고전소설전집』 5(아세아문화사, 1980), p. 3.

49) 윤성근, 「유학자의 소설 배격」, 어문학 25(한국어문학회, 1971)

50) 李遇駿, 「小說」, 앞의 책.

51) 李炳勛, 「懸吐彰善感義錄序」, 앞의 책.

52) 晚窩翁, 앞의 글.

53) 한문 표기 필사본(1책, 김동욱 소장), 김동욱, 앞의 논문, p. 77에서 재인용.

54) 「創善感義錄跋」, 『拙修齋集』(驪江出版社 影印, 1984), p. 317.

으로부터 발생한 무료함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실현이다. 그리고 시간적·정신적 한가함은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주위의 상황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⁵⁵⁾ 앞에서 언급한 이우준, 만와웅 등은 정치 현실에의 참여 실패 또는 은퇴 이후에 창선감의록을 읽었다. 그러므로 창선감의록의 독자들이 소견하려 했던 한가함은 자신들이 국가 기구에 등용되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시간적·정신적 상황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정치에서 제외되어 참여하지 못한 지식인으로서의 독자가 소견을 위하여, 창선감의록의 사건 중에서 가진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소견을 위해서는 흥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흥미를 일으키는 요소로는 위기로 유발되는 긴장과 군담의 통쾌함⁵⁶⁾ 등이다. 그런데 창선감의록의 구조는 지배 집단의 구성원이 서로 대립한 결과, 한 인물이 정치적 경제적 몰락을 겪은 후 충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확인하고 실천하여, 정치적·지배 수단을 획득하고 현실 개량을 지향하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한 독자는 창선감의록의 이러한 구조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지하였다.

“綴花相國珍及尹尚書汝玉之事”⁵⁷⁾

이 내용은 이 독자의 주된 관심이 상국이 된 화진과 상서가 된 윤여옥의 활약상과 그들의 상황 변화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창선감의록을 지배 집단으로 부상하는 인물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흥미를 가진 작품으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한문으로 표기된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이 작품에서 지배 및 생산의 위기 국면에서 그들의 이념적 가치의 획득과 왕도 정치를 회복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려는 현실 개량을 기대하였다고 하겠다.

55) 金秉權, 「許筠의 閑情錄 編述動機考」, 于海李炳銑博士華甲紀念論叢(同刊行委員會, 1987), pp. 584-585.

河岡麗, 「文學創作 動因으로서의 閑과 그 表出 樣相」(釜山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pp. 96-98.

56) 金秉權, 「彰善感義錄 研究」, pp. 19-27.

57) 李遇駿, 「小說」, 앞의 책.

2. 국문표기와 상호존중 실현

창선감의록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는 양반 집단이 가문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 이념인 효와 우애를 생산하였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남녀가 상호를 존중하는 현실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작품의 구조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고찰하기 위하여 국문으로 표기된 필사본의 후기를 분석하기로 한다.

창선감의록에 대하여 인식한 교훈적 기능부터 분석하기로 한다. 창선감의록의 후기 중에서 작품의 내용을 평하고 있는 부분만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이 책을 보난 스님은 이더로 본받아 착한 일은 비와 형하고 악한 일은 중제하고 본받지 말지어다⁵⁸⁾
- ② 이 말이 드헌 말은 아니니 부터부터 효우지심을 가지라 만일 밋지 온니 켜던 이 책을 명심불망하여 잊지 말고 충효를 명심불망하옵소서⁵⁹⁾
- ③ 남매간의 우의한 범절 세상의 드물도다 남도 다 이어하이 보난 사람도 이 일 본받게 하소서⁶⁰⁾
- ④ 더적 이 책은 충효 겸전과(…미상…)을 겸하여 착함을 비꾸려 은회갑기를 훨씬 고로 호을 창선감의록이라 하니 그 쓰질 의논큰디 회회도 가히 엮문덜 하온니 고담 줌 제일가는 책이라 무론 뒤시라도 보난니는 문목을 주셔니 상고하여 보시오면 자연 마음이 감심하여 그 묘리를 대강 아오리다⁶¹⁾

위의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필사자가 작품세계에서 확인한 윤리는 忠孝, 友愛, 孝友 등이다. 이 중에서 효와 우애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인데, 이러한 윤리는 조선조 가정 사회에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념이었다. 창선감의록을 필사한 자들은 이 작품을 읽고 ‘착한 일을 배우고 악한 일을 본받지 말라’(①), ‘효우지심을 가져라’(②), ‘남매간의 우애하는 범절을 본받아라’(③), ‘문맥을 자세히 상고하여 보시오면 자연 마음이 감심하여 그 묘리를 대강 아오리다’(④) 등과 같이 기록하고

58) 한문 표기 필사본(1책, 김동욱 소장), 김동욱, 앞의 논문, p. 76에서 재인용.

59) 국문 표기 필사본(2책,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51(오성사, 1986), p. 242.

60) 국문 표기 필사본(1책,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97(오성사, 1986), p. 91.

61) 국문 표기 필사본(1책, 류탁일 소장), 권지상 후기.

있다. 이로써 볼 때, 그들은 창선감의록에서 효와 우애를 실천하는 인물을 모범으로 삼고, 또 그들의 윤리와 행동을 생활에서 재현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창선감의록을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 및 그 질서와 가문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한 효성과 우애의 실천을 강조한 교훈적 기능을 지닌 작품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양반 가문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의 확인과 획득을 기대하였다고 하겠다.

다음 창선감의록에 대한 흥미적 기능을 여성의 관심사로써 분석하기로 한다. 앞에서 창선감의록이 가정의 윤리인 효와 우애라는 이념적 가치를 생산하고, 남존여비의 사회 제도와 가부장 중심의 가족 제도에서 여자가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현실 개량을 생산한 작품이라고 하였다. 창선감의록의 한 후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내 아뢰 위친⁶²⁾은 마름으로 성년의 극녀⁶³⁾여 벗겨시니 자자주옥이로다. 내외
앗기는 마름 슈중보옥갓치 아나니 보시니니 앓겨 불지어다 이 책은 본손으로
누리와 세손제부의 전⁶⁴⁾하고 출가 년신들은 벗겨갈디어다⁶²⁾

이 독자는, '내외 앓기는 마음'에서 보는 것처럼, 창선감의록의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 내외가 상호 존중하는 점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슈중보옥갓치 아나니'에서 보는 것처럼, 내외의 상호 존중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독자의 발언으로 보았을 때, 여성 독자는 창선감의록에서 남존여비와 남성 중심의 제도에서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문으로 표기된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이 작품에서 가정 윤리의 위기 국면에서 이념적 가치의 획득과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에서 여성의 위치와 자기 존재 가치를 각성하고, 남녀의 상호 존중이 실현되는 현실 개량을 기대하였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문으로 표기된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이 작품에서 지배 및 생산의 위기 국면에서 이념적 가치를 획득하고 왕도정치를 회복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려는 현실 개량을 기대하

62) 한문 표기 필사본(4책, 김동욱 소장), 김동욱, 앞의 논문, p. 76에서 재인용.

였다. 국문으로 표기된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가정 윤리의 위기 국면에서 이념적 가치를 획득하고 여성의 존재 가치를 각성하여 남녀 상호 존중을 지향하려는 현실 개량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창선감의록이 국문으로도 표기되고 한문으로도 표기된 요인을 규명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IV. 독자의 삶의 방식과 이중표기화

창선감의록이 한문으로도 표기되고 국문으로도 표기되어 있다. 이 작품이 왜 국문으로도 표기되고 한문으로도 표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실증적인 기록으로써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이 기록은 흔하지 않다.⁶³⁾ 그런데 창선감의록이 이중의 문자 체계로 표기될 수 있었던 요인은 이 작품에 대한 독자의 기대와 관련하여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독자의 기대는 독자의 현실적인 삶의 방식에서 형성된다. 여기서는 기대를 형성한 독자의 삶의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창선감의록이 이중의 문자 체계로 표기되어 유포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A. 남성의 지향 실현과 한문표기

한문으로 표기된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창선감의록의 구조는 양반 신분 중심의 지배 이념 확인 및 가문의 위신 회복이라는 이념적 가치와 남성의 지배 수단 획득이라는 현실 개량을 생산한 면이 있었다. 창선감의록의 남성 독자는 지배 집단에 속하지 못한 양반의 신분이었고, 한문으로 표기된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이 작품에서 지배 및 생산의 위기 국면에서 이념적 가치를 획득하고 왕도정치를 회복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려는 현실의 개량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한문으로 표기된 창선감의록을 읽을 수 있었던 독자는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하였던 신분으로 한정될 것인데, 이들은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과거를 준비한 남성이 중심이었다. 이 사실들은

63) 林熒澤님 소장의 구운몽의 후기에 ‘구운몽과 창선감의록이 부너라도 방직 여가에 보암죽 하기’ 때문에 번역되었음을 밝히고 있다.〈林熒澤, 앞의 논문, p. 129.〉

창선감의록이 한문으로 표기되어 유포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창선감의록의 정신 구조가 한문을 읽을 수 있었던 많은 남성 독자들의 작품에 대한 기대 및 현실적 삶의 지향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창선감의록이 한문으로 표기되어 유포되었을 것이다. 이 가설은 남성들의 현실적 삶의 방식이 지향한 이상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조선조 후기 사회의 특징은 전기에 확립된 생산, 지배, 이념의 안정이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이익 집단 사이의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으로 붕괴되는 위기라고 요약된다. 생산의 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루면서 농토의 황폐화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상품화폐경제의 확산에 따라 자연경제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던 생산 및 재생산의 내용이 변질되고, 농민은 상품작물의 생산자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고, 이에 따라 농민층 내부의 계층 분화가 이루어져 몰락한 빈민 계층이 형성되었다. 지배의 위기는 17세기 이후 18세기에는 지배 집단 내부의 반복된 이익 갈등과 대립으로 초래되었다. 19세기에는 물질적 토대에서 일어나고 있던 변화로 지배 기구의 원활한 기능 발휘가 저해되었고, 생산 농민에 대한 억압과 수탈로 인한 각종의 민란은 지배 집단 내부의 정치적 대립을 첨예화하여 자신들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였으며, 각종의 민란과 외세의 위협으로 왕조의 통치 기구는 점점 무력화해 갔다. 이념의 위기는 17세기 말 이후 18세기에는 중인이하 계층의 자기 존재 가치 확인과 신분적 상승을 도모하는 자들에 의해 지배 질서를 지탱하게 했던 이념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났다. 19세기에는 주자학적 이념으로는 사회 현상을 해석할 수 없었고, 서구의 사민평등사상이 전래하면서 전통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한 신분질서를 강하게 위협하게 되었다.⁶⁴⁾

위와 같은 위기에 대응하는 양반들의 움직임은 첫째 전통적인 이념을 개량 또는 회복하려는 방향과 둘째 서구의 새로운 이념을 수용하여 개화하려는 방향, 세째 농민들의 힘을 동원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첫째의 움직임은 전통적인 이념을 개량하려는 18세기의 실학자와 전통적인 이념을 회복하려는 19세기의 위정척사파가 주체가 되었다. 실학자들은 왕조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전제 개혁, 신분차별의 완화, 상공업의 진흥, 세정의 개혁

64) 崔載賢, 앞의 논문, 참조.

등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하였다.⁶⁵⁾ 위정척사학파는 주자학의 정통을 자처한 재야 지식인이었고, 그들의 정치적 의도는 정치 현실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므로 주자학적 이상에 부합하는 왕조 질서의 회복을 통하여 그들에게 결여되었던 지배 수단을 장악하고 왕조의 지배 집단으로 부상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은 민중을 억압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한 반근대적이었으며, 반민중적이었다.⁶⁶⁾

그런데 창선감의록의 구조는 상민 신분과 양반 신분의 대립에서 상민 신분의 현실 자각과 자기 존재 가치 인식에 대한 양반 신분 중심의 신분적 질서와 이념적 가치를 확인하고 생산하였으며, 이 구조는 상민 신분에 대하여 신분 질서를 확립하려는 지배 이념을 확인하려는 양반 집단의 정신 구조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반 집단은 지배 집단 내부의 대립으로 붕괴된 지배 질서와 외적의 침략으로 처하게 된 국가의 위기를 회복하고, 지배 수단과 생산 수단을 획득하여 지배 집단으로 부상하는 현실 개량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창선감의록의 구조가 지향하는 정신 구조는 위에서 살펴본 전통적인 이념을 개량하거나 회복하여 지배 집단으로 부상하려는 재야 지식인들의 현실적 삶의 이상과 일치한다. 바꾸어 말하면, 창선감의록의 구조는 지배 수단을 획득하려는 재야 지식인들의 현실적인 삶의 이상을 재현한 것이다.⁶⁷⁾ 이러한 재현은 재야 지식인들이 창선감의록의 구조를 통하여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이상을 간접적으로 실현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이념을 개량하거나 회복하려는 재야 지식인들의 현실적 삶의 방식을 토대로 하여 소설에 대한 독자 기대를 형성하였고, 창선감의록은 그들의 기대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문자 생활의 수단이었던 한문으로 표기되어 유포되었다.

65) 崔載賢, 앞의 논문, p. 110.

66) 위의 논문, pp. 114-126.

67) 군담을 포함한 화진의 일대기가 재야지식인들의 이상을 재현한다. 이러한 재현은 군담을 포함한 군담소설이 실세한 양반들의 권력 회복의 의지를 표출하는 것과 일치한다.〈徐大錫, 「軍談小說의 構成과 作者意識」, 啓明論叢 7(啓明大 出版部, 1971).〉

B. 여성의 지향 실현과 국문표기

국문으로 표기된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창선감의록의 구조는 양반 신분 중심의 지배 이념 확인 및 가문의 위신 회복이라는 이념적 가치와 여성의 남녀 상호 존중이라는 현실 개량을 생산한 면이 있었다. 창선감의록의 여성 독자는 양반 가문의 구성원이었고, 국문으로 표기된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이 작품에서 가정 윤리의 위기 국면에서 이념적 가치를 실천하고 여성의 존재 가치를 각성하여 남녀 상호 존중을 지향하려는 현실 개량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국문으로 표기된 창선감의록을 읽을 수 있었던 독자는 대체로 국문으로 문자 생활을 하였던 신분일 것인데, 이들은 국문을 익힌 여성이 중심이었다. 이 사실들은 창선감의록이 국문으로 표기되어 유포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창선감의록의 정신 구조가 국문을 읽을 수 있었던 많은 여성 독자들의 기대 및 이상적인 삶의 지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창선감의록이 국문으로 표기되어 유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여성들의 현실적 삶의 방식이 지향한 이상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먼저 여성들이 남성의 의도에 의해서 창선감의록을 읽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조에 양반들은 유학자로서 소설을 대체로 배격하였고, 특히 여성이 소설을 읽음으로서 일어나는 폐단을 지적하고 여성에게 소설을 못 읽게 하였다.⁶⁸⁾ 그런데 창선감의록은 양반 중심의 이념적 가치인 효와 우애를 실천하여 파산의 위기를 직면한 가문의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가문의 위신을 지켜나가는 여성을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여성을 형상화한 창선감의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남성의 발언이 있다.

① 彰善感義錄……皆所以絃閨範內行 而節節有奇聞異說 足令人家爲婦女者鑑戒而勸懲焉⁶⁹⁾

② 蓋彰善感義錄 一書 ……而花家之孝子悌弟 所以格天感神之始末也라 其論事之正直하고 措語之平易하여 使閭巷婦孺로 讀之면 足以感發善心하여 廉頑立懦而非尋常稗官比也라⁷⁰⁾

68) 金東旭, 黃沮江 共著, 『韓國古小說入門』(開文社, 1988), p. 13.

69) 李遇駿, 「小說」, 앞의 책.

70) 李炳勸, 앞의 글.

①을 기록한 인물은 이우준이며, ②를 기록한 인물은 이병옥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우준과 이병옥은 지식을 갖춘 양반 신분으로서 창선감의록의 독자였다. 그들의 발언은 창선감의록의 내용이 鑑戒勸懲 또는 感發善心の 교훈적 기능을 갖는 작품이기 때문에,⁷¹⁾ 창선감의록은 여성 독자가 읽을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남성들의 발언은 여성이 창선감의록의 독자가 될 수 있었던 한 요인이 된다.

다음 창선감의록이 현실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여성의 자각을 실현하기 때문에, 여성이 이 작품을 읽었음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조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지배와 복종의 관계였고, 남존여비의 사회제도와 가부장 중심의 가족 제도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현실로의 개량을 지향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창선감의록은 한 여성을 통하여 효의 실천에 있어서, 직분에 있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창선감의록의 구조는 여성 존재의 위치와 가치를 인식하고 남녀 사이의 상호 존중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구조가 지향하는 정신 구조는 여성이 현실적 삶의 방식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로 개량되기를 지향한 것과 일치한다. 바꾸어 말하면, 창선감의록의 구조는 남녀 사이의 상호 존중을 지향한 여성들의 현실적인 삶의 개량을 재현한 것이다.⁷²⁾ 이 재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로의 개량을 지향한 여성들이 창선감의록의 구조를 통하여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이상을 간접적으로 실현하게 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문자 해독 능력을 검토함으로써 창선감의록이 국문으로 표기될 수 있었음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조의 여성 교육은 한문을

71) 이는 창선감의록에 대한 독자의 기대에서도 확인되었다.

72) 이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鄭明基, 「女囊傑系 小說의 形成過程 研究」,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박경원, 「洪桂月傳研究」,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황영옥, 「정을선전연구-여성의 지위를 중심으로-」,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鄭俊植, 「變裝話素의 敘事的 受容과 意味」,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통한 학문과 문학은 억제되고, 국문을 통하여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을 습득하는 정도였다.⁷³⁾ 즉 보편적인 여성들은 국문으로 문자 생활을 하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창선감의록은 남성들에 의해서, 또는 작품 구조에 대한 여성의 기대에 의해서 여성에게 읽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창선감의록이 한문으로만 표기되어 유포된다면, 국문으로 문자 생활을 한 여성들이 이 작품을 읽을 수가 없다. 이러한 여건이 결국 창선감의록을 국문으로 표기해야 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⁷⁴⁾

따라서 여성들에게 창선감의록을 읽히고자 한 남성들의 의도 및 남녀 사이의 상호 존중을 지향한 여성들의 현실적 삶의 방식을 토대로 하여 이 작품에 대한 여성 독자의 기대를 형성하였고, 창선감의록은 그들의 기대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문자 생활의 수단이었던 국문으로 표기되어 유포되었다.

이상의 고찰로써 창선감의록이 한문으로도 표기되고 국문으로도 표기되어 유포될 수 있었던 요인을 규명할 수 있었다. 창선감의록에는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하고 지배 수단을 획득하여 지배 집단으로 부상하려는 남성 독자의 기대와 국문으로 문자 생활을 하고 남녀 사이의 상호 존중을 지향한 여성 독자의 기대가 공존해 있었다. 창선감의록의 이러한 구조는 창선감의록이 한문으로도 표기되고 국문으로도 표기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73) 林煥澤, 앞의 논문, pp. 109-113.

황영옥, 앞의 논문, pp. 50-53.

74) 다른 작품의 경우는 한문 표기를 국문으로 전환한 주체가 스스로 그 이유를 밝혀 놓은 경우가 있다. 金春澤은 한문으로 표기한 「정경부인한산나씨행장」을 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문으로 전환하였고 <宋百憲, 『西浦家門行狀(螢雪出版社, 1982.)』, pp. 117-118>, 아직까지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남성이 한문으로 표기된 사씨남정기를 누님의 부탁으로 국문 표기로 전환하였다(<김병권, 앞의 발표요지>). 이 예들은 한문을 읽지는 못하나 국문을 읽을 수 있는 여성들에게 작품을 읽히려는 의도가 그 작품의 표기 문자를 한문에서 국문으로 전환한 요인이 되었음을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문으로도 표기되고 국문으로도 표기되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창선감의록이 이중표기화될 수 있었던 한 요인을 규명하려는 의도로 시도되었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여 이 작품을 발생하게 한 사회 집단의 정신 구조를 고찰하였고, 독자의 발언을 분석하여 작품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고찰하였으며, 독자의 삶의 방식과 문자 생활을 검토하여 이중표기화의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여 결론짓고자 한다.

첫째, 창선감의록의 구조는 양반의 이념적 가치를 생산하였다. 상민 신분과 양반 신분의 대립에서 상민 신분의 현실 자각과 자기 존재 가치 인식에 대한 양반 신분 중심의 지배 이념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신분적 질서와 가정의 윤리가 위기의 국면임을 인식한 양반 집단이 자기 신분 중심의 지배 이념을 확인하고, 가문의 위신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이 구조는 상민 신분에 대하여 지배 이념을 확립하고, 가문의 질서를 바탕으로 한 가문의 위신을 획득하려는 양반 집단의 정신 구조에서 발생하였다.

둘째, 창선감의록의 구조는 양반 집단의 구성원이 현실 개량을 지향하였다. 남성은 충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배 질서의 위기와 국가 존망의 위기를 회복하고, 정치적 지배 수단과 생산 수단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여성은 효와 우애의 이념적 가치를 실천하고, 남존여비의 사회 제도와 가부장 중심의 가족 제도에서 남녀 상호 존중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앞의 경우는 정치적 위기의 국면을 극복하고 지배 수단을 획득하려는 양반 집단의 정신 구조에서 발생하였고, 뒤의 경우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각성한 양반가 여성들의 정신 구조에서 발생하였다.

셋째,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양반 신분의 집단이었다. 창선감의록의 유포본은 지식인의 양반 신분의 독자 또는 이 신분을 지향한 독자들의 요구에 의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되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남성 독자는 지배 집단에 속하지 못한 양반 또는 지식인이었고, 여성 독자는 학식을 겸비한 양반가의 부녀자였다. 그러므로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지배 집단에 속하지

못한 양반 신분의 남성과 양반가의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네째,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이 작품을 발생하게 한 집단의 정신 구조에 대하여 자신들의 현실 개량을 기대하였다. 한문으로 표기된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지배 및 생산의 위기 국면에서 이념적 가치를 실천하여 왕도정치를 회복함으로써 남성의 지배 수단의 획득을 기대하였다. 국문으로 표기된 창선감의록의 독자는 가정 윤리의 위기 국면에서 이념적 가치를 획득하고 남존여비의 사회 제도와 가부장 중심의 가족 제도에서 여성의 남녀 상호 존중의 실현을 기대하였다.

다섯째, 창선감의록은 남성 독자의 기대와 여성 독자의 기대를 공유하였기 때문에 이중의 문자 체계로 표기되었다. 지배 및 생산의 위기 국면을 회복하고 지배 수단을 획득하는 구조는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한 남성들의 기대에 호응하였기 때문에, 작품이 한문으로 표기되어 유포되었다. 여성이 자신의 현실과 존재 가치를 자각하고 남녀의 상호 존중을 실현하는 구조는 국문으로 문자 생활을 한 여성들의 기대에 호응하였기 때문에, 작품이 국문으로 표기되어 유포되었다.

이상의 결론은 실상을 거의 알지 못하는 독자층의 사회적 신분과 그들의 의식을 조명하고, 작품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역사적 변천을 고찰하고, 수용사의 측면에서 한국의 소설사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중표기화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작품의 구조와 독자의 발언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앞으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인 현실의 변화에 따른 독자 기대의 변화 및 표기 문자의 전환에 따른 내용 변화와 독자 기대의 관계, 창선감의록의 독자 기대와 다른 작품의 독자 기대의 관련성 등을 고찰하여야 보다 큰 보편성을 얻게 될 것이다.